


아동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이 성인 초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: 죄책감과 억제 정서조절전략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


 김희영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) · 이승은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박사과정)
 김지은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) · 최민(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)
 김태희(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석사과정) · 송주현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/인간 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조교수)

Introduction

- 아동은 슬픔, 화,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며(권연희, 이종희, 2005), 아동기에 형성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전략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(김은정, 김진숙, 2010).
- 한편, 선행연구에 따르면,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죄책감(Donohue et al., 2015) 및 억제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으나(Cabecinha-Alati et al., 2020),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그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.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녀의 죄책감 및 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한다.

Research Questions

1.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과 성인 초기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죄책감과 억제전략이 매개하는가?
2.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(심리적 고통, 처벌, 과소평가)이 죄책감 및 억제를 통해 성인 초기 우울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은 어떠한가?

Method

1. 연구대상

전국의 성인 초기 남녀 대학생 435명
(여 50.7%, Mage=23.78, SD=2.21명)

2. 측정도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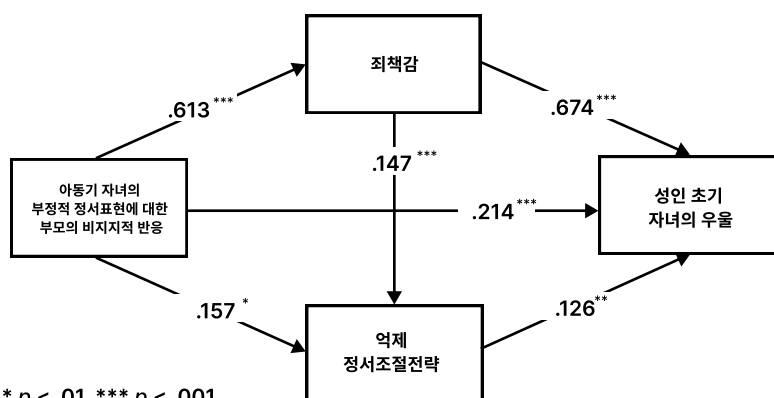
- 아동기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(CCNES): Fabes et al.(1990)의 척도를 회고적 척도로 변안한 박유경(2009)의 척도 중 비지지적 반응인 심리적 고통 12문항($\alpha = .71$), 처벌 12문항($\alpha = .70$), 과소평가 12문항($\alpha = .76$) 세 하위 영역의 평균을 사용.
- 성인기 우울: Derogatis(2001)의 단축형 간이정신검사. 우울 6문항($\alpha = .902$)
- 죄책감: 수치심과 죄책감 경향성 척도(Marschall, 1994). 죄책감 5문항($\alpha = .916$)
- 억제 전략: De France와 Hollenstein(2017)이 개발한 정서조절전략 척도(RESS)를 한국에 맞게 변안한 척도 사용. 억제 4문항($\alpha = .821$)

3. 분석방법

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.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,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6번 모형 및 Mplus 사용.

Results

1) 성인 초기 우울과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의 종단적 관계에서 죄책감 및 억제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



* $p < .05$, ** $p < .01$, *** $p < .001$

[그림 1] 성인 초기 우울과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의 종단적 관계에서 죄책감 및 억제의 이중매개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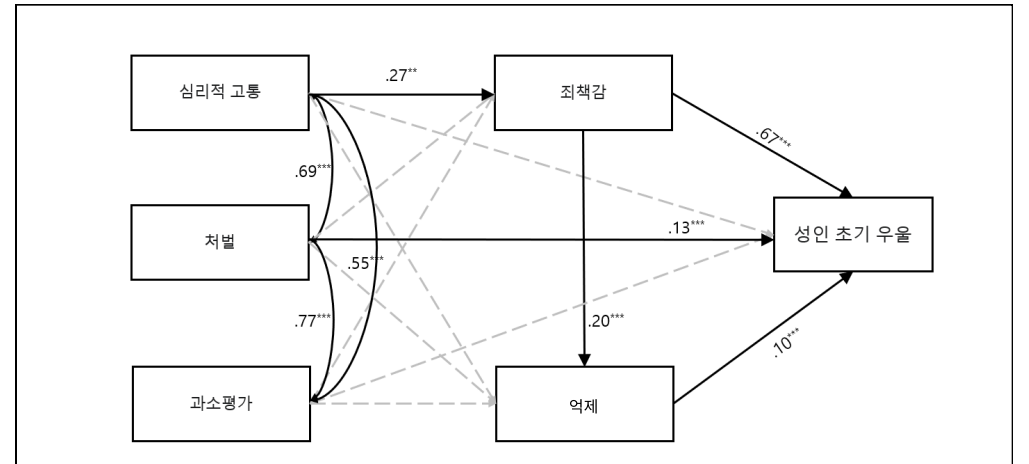
Result

구분	통계치				
	Effect	SE	LLCI	ULCI	
간접효과	비지지적 반응 → 죄책감 → 성인기 우울	.413	.058	.302	.525
	비지지적 반응 → 억제 → 성인기 우울	.202	.012	.001	.048
	비지지적 반응 → 죄책감 → 억제 → 성인기 우울	.011	.006	.002	.025
간접효과 총합		.445	.051	.322	.564
		Effect	SE	t	
직접효과	비지지적 반응 → 성인기 우울	.214	.060	3.596***	
총효과	직접효과 + 간접효과	.659	.078	8.454***	

*** $p < .001$.

[표 1] 매개효과검증

- 회고된 아동기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은 성인기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, 죄책감과 억제 정서조절전략은 이들 간의 관계를 각각 간접적인 경로로 매개하였다.
 - 또한,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억제의 순차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.
2. 비지지적 반응의 각 하위요인이 죄책감 및 억제를 통해 성인 초기 우울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은 어떠한가?



숫자는 표준화된 경로 계수이며,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. 아동의 성별은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지만 그림에는 제외되었음.
* $p < .05$, *** $p < .001$.

[그림 2] 심리적 고통반응, 처벌반응, 과소평가반응이 죄책감 및 억제를 통해 성인 초기 우울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

- 심리적 고통반응의 경우 죄책감($\beta = 0.18$, $SE = 0.05$, 95% CI [0.09, 0.28])을 매개로, 또한 죄책감과 억제를 순차적 매개로 하여($\beta = 0.005$, $SE = 0.003$, 95% CI [0.001, 0.01])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처벌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($\beta = 0.13$, $SE = 0.06$, 95% CI [0.009, 0.24])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
- 과소평가반응은 우울에 직접,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Conclusion

-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인 반응이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(노지형, 송현주, 2012; Bjørk, 2020) 죄책감과 억제 전략 각각을 통해서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 따라서, 비지지적 반응이 성인기 자녀가 부정적 정서인 죄책감을 느끼게하고 이를 억제하도록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게하여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
- 또한, 아동기에 경험한 비지지적 반응 중에서도 구체적인 하위 유형의 반응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성인 초기 우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,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 시 아동기 부모-자녀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담 및 부모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